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금방 도착한다고 한 친구를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듣고) 네, 저도 얼마 전에 친구를 데리러 가기 위해 버스 도착 시간을 물어보았는데, 금방 도착한다는 말에 서둘러 출발했다가 30분이나 친구를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금방’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표현에 주목하여,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친구가 저에게 ‘금방’이라는 말 대신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 주었다면, 서로 도착 시간을 다르게 생각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듯 구체적인 수량이나 시간 등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거의, 꽤, 일찍’과 같은 표현은 유의하여 사용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복된 표현을 피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을 반복하여 문장이 장황해지면 청자가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나간 과거의 옛일을 잊지 말고 계획을 다시 재점검하자.’라고 말하기보다 ‘과거의 일을 잊지 말고 계획을 다시 점검하자.’와 같이 말한다면 불필요한 반복 없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나 과도한 피동 표현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출입을 금지시킨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대답을 듣고)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금지하다’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이미 사동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의미상 능동 표현이 적절한 상황에서도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독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보다는 ‘독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도 그동안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무심코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조금씩 언어 습관을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요? 제 발표가 여러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에 신뢰감을 주고 있다.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의 순서를 도입부에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관련 경험을 통해 발표 화제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임을 소개해야겠어. ①

[전개]

- 도입에서 언급한 경험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어. ②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고려한 표현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을 함께 제시해야겠어. ③
- 청중에게 익숙한 사례를 들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야겠어. ④

[정리]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권유하는 바를 언급해야겠어. 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발표 잘 들었어요. 그런데 화자는 의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말하기도 해요. 거절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처럼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할 때, 자신과 청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런 경우예요. 또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도 해요. 그럼, 발표자의 발표 내용과 방금 들은 설명을 토대로 아래 제시된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해 말해 볼까요?

- ㉠ (갑자기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 오늘 행사를 취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결정입니다.
- ㉡ (발표하는 상황에서) 이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되어졌어요.
- ㉢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식탁을 안 닦았네요.
- ㉣ (버스에서 내릴 때 비켜 주기를 요구하기 위해) 저 내릴게요.
- ㉤ (지리가 낯설어 길을 묻는 여행자에게 답하는 상황에서) 적당히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학 생 : _____ [A] _____

- ① ㉠은 ‘부득이한’을 삭제하면 비슷한 의미를 중복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 ② ㉡은 ‘해석되어졌어요’를 ‘해석되었어요’로 바꾸면 피동의 의미를 중복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어요.
- ③ ㉢은 ‘식탁이 안 닦였네요.’라고 말하면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어요.
- ④ ㉣은 ‘비켜 주세요.’라고 말하면 의미는 명확해지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 ⑤ ㉤은 ‘적당히’ 대신 구체적 수치를 말하면 의미는 명확해지지만, 내용을 완곡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4~6] 다음은 수업 중 진행한 모의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난 시간에 정한 역할에 따라 모의 협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을과 축제 기획사인 △△사는 올해 개최되는 해돋이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막 공연 장소 선정과 관광객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에 대해 ○○마을의 입장에서 듣고, △△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학생 1 : 이번 축제의 기획안을 보니 개막 공연 장소를 마을 공원의 중앙 광장으로 제안하셨더군요. 그런데 중앙 광장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막 공연 장소를 공원의 어울림 마당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 2 :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마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울림 마당은 주택가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진행되는 공연의 특성상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어 장소 변경이 어려울 듯합니다.

학생 1 : 그러면 공연 시간을 뒤로 늦추면 어떨까요?

학생 2 : 공연팀이 이후 공연 일정도 꽤 찬 상황이라 시간 변경은 어렵습니다. 안전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중앙 광장 진입로에 설치하기로 한 마을 특산물 시식 부스의 위치를 어울림 마당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학생 1 : 시식 부스 설치 장소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시간에 안전 관리 인력을 중앙 광장에 10명 정도 추가 배치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학생 2 : 하지만 그건 책정된 축제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 안전 관리 인력을, 오후 근무 시간을 줄여 오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오전에 안전 관리 인력 10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가능할 듯합니다.

학생 1 : 좋습니다.

사회자 : 네, 축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 관리 인력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군요. 그럼, 다음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1 : 작년 축제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축제에 찾아오신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축제일이 주말이라 방문객이 많을 테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축제 행사장까지 걸어갈 거리에 있는 공원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혼잡이 예상되고, 마을 입구의 공터는 주차 공간이 많지만 축제 행사장과의 접근성이 안 좋아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학생 2 : 주차 문제의 경우에는, [가]

사회자 : ○○마을에서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4. 위 모의 협상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를 지정한다.
- ② 협상자의 제안을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요청한다.
- ③ 협상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 ④ 협상의 흐름이 어긋나지 않도록 협상 쟁점을 바로잡는다.
- ⑤ 협상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5.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상대측의 제안이 불리울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상대측의 상황에 공감을 표현한 후 제시된 대안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두 번째 발화에서 상대측의 제안을 거절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학생 2는 세 번째 발화에서 상대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6. <보기>는 ‘학생 2’가 협상을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마을 축제 장소 인근의 주차장 정보

주차 장소	주차율		행사장까지의 소요 시간
	평일	주말	
공원 주차장	94%	98%	도보 2분
보건소 주차장	96%	21%	도보 2분
구청 주차장	91%	13%	도보 5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59%	97%	도보 4~7분
마을 입구 공터	10%	14%	도보 28분

[자료 2] 인터넷에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검색하여 정리한 메모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구청,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 공간을 개방함. 주말이나 연휴 기간 남는 주차 공간 활용 가능함. 평일에 개방할 경우, 공공기관 방문객의 불편이 커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개방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유료 개방함. 평일 남는 주차 공간 활용 가능, 주민 수익 창출됨. 거주자 우선이라 남는 공간이 없으면 개방 불가함.

[자료 3] ◇◇마을 축제 담당자 인터뷰

“우리 ◇◇마을에서는 지난 축제 당일 마을 외곽의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셔틀버스를 통해 관광객들을 축제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축제 장소와 가까운 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했더니 축제 이후에도 주차장에 계속해서 차를 주차해 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다른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① 공공기관의 남는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여 관광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요?
- ②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유료로 개방하여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 ③ 보건소와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 ④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주차율이 낮은 요일에 개방하여 공원 주차장의 주차 혼잡도를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 ⑤ 보건소와 구청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마을 입구 공터와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7.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정문은 주로 부정 부사 ‘안’, ‘못’을 쓰거나 용언의 어간에 ‘-지 아니하다(않다)’, ‘-지 못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다. ‘안’, ‘못’을 사용하여 만든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지 아니하다(않다)’,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든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안’ 부정문은 주체가 의지를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의지 부정’과 주체의 속성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단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단순 부정을, 동사인 경우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나타낸다.

‘못’ 부정문은 주체의 능력이나 그밖에 다른 외부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드러내는 ‘능력 부정’을 의미하고, 보통 서술어가 동사일 때 쓰인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태를 기대치로 하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서술어가 형용사이더라도 긴 부정문의 형태에 한해 실현될 수 있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부정은 용언의 어간에 ‘-지 말다’를 결합한 ‘말다’ 부정문을 쓴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쓰이지 않지만, 기원이나 희망의 뜻을 나타낼 때는 쓰일 수 있다.

<자 료>

학생 1: 와, 이제 제법 겨울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꺼운 옷은 ㉠ 못 입겠더니, 꽤 쌀쌀해졌네.

학생 2: 근데 너 계속 기침하네? 목소리 상태도 ㉡ 좋지 않고.

학생 1: 어젯밤에 귀찮아서 창문을 ㉢ 안 닫고 잤더니 감기에 걸렸나 봐. 목소리도 잘 안 나와.

학생 2: 내일 가장 평가가 있는데 괜찮아? 걱정되겠다.

학생 1: 맞아. 연습도 부족해서 마음이 ㉣ 편하지 못해. 내일은 감기가 더 심해지지 않게 부디 ㉤ 출지만 말아라.

- ① ㉠은 동사 앞에 부정 부사 ‘못’을 써서, 주체의 능력으로 인해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짧은 부정문이다.
- ② ㉡은 형용사의 어간에 ‘-지 않다’를 결합하여, 단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긴 부정문이다.
- ③ ㉢은 동사 앞에 부정 부사 ‘안’을 써서, 의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짧은 부정문이다.
- ④ ㉣은 형용사의 어간에 ‘-지 못하다’를 결합하여, 마음이 편한 상태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긴 부정문이다.
- ⑤ ㉤은 형용사의 어간에 ‘-지 말다’를 결합하여, 화자가 기원하는 바를 나타내는 ‘말다’ 부정문이다.

8.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모음 조화에 따라 ‘-옵’이나 ‘-옵’이 주로 쓰였습니다. 중세 국어의 명사형 활용 방법을 적용하여 중세 국어 단어인 ‘잡다’와 ‘늡다’를 명사형으로 활용해 볼까요? 중세 국어에는 이어 적기의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 예문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예 1 히를 () 智慧 너비 비칠
[해를 잡음은 지혜가 널리 비칠]

예 2 저으며 () 잇느너
[젊으며 늡음이 있느냐?]

학생: 예 1의 빈칸은 (㉠)이라고 쓰고, 예 2의 빈칸은 (㉡)라고 써야 합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 | | |
|-------|-----|
| ㉠ | ㉡ |
| ① 자보몬 | 늘고미 |
| ② 자보몬 | 늘구미 |
| ③ 자부몬 | 늘고미 |
| ④ 자부몬 | 늘구미 |
| ⑤ 자브몬 | 늘그미 |

9.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활동]

단어의 짜임과 품사를 모두 고려했을 때, 다음 자료의 ㉠~㉤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로 적절한지 판단하고, [예시 답안]의 형식을 활용하여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함께 적절성 여부를 서술하시오.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단어의 짜임				
합성어	㉠ 새것	㉡ 휘감다	㉢ 본받다	
파생어	㉣ 먹이	들볶다	㉤ 굳세다	

[예시 답안]

‘들볶다’는 접사 ‘들-’과 어근 ‘볶-’이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이므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다.

- ① ㉠은 어근 ‘새’와 어근 ‘것’이 결합하여 형성된 명사이므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다.
- ② ㉡은 어근 ‘휘-’와 어근 ‘감-’이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이므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다.
- ③ ㉢은 어근 ‘본’과 어근 ‘받-’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은 맞으나 동사이므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어근 ‘먹-’과 접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명사이므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다.
- ⑤ ㉤은 형용사인 것은 맞으나, 어근 ‘굳-’과 어근 ‘세-’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이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 [ㅇ]으로 발음한다.

다만, ‘ㄷ’은 자음 앞에서 [ㅌ]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ㄴ’,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ㄹ), ㄴ(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ㅌ, ㅎ), ㄷ(ㅌ, ㄷ, ㄹ, ㅂ, ㅅ, ㅈ, ㅊ, ㅌ, ㅎ)’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ㄷ(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ㄴ, ㄷ, ㄹ’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① 제10항에 따르면, ‘ㄷ’ 뒤에 어미 ‘-게’가 붙은 형태라는 점은 동일하더라도, ‘읽게’의 ‘ㄷ’은 [ㄷ]로, ‘읽게’의 ‘ㄷ’은 [ㅌ]로 발음되겠군.
- ② 제24항에 따르면, ‘ㄷ’ 뒤에 ‘기’가 나타나는 형태라는 점은 동일하더라도, ‘읽기며’의 ‘기’는 ‘읽기도’의 ‘기’와 달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겠군.
- ③ 제10항과 제18항에 따르면, 모두 ‘없다’의 활용형이더라도, ‘없고’의 ‘ㄷ’은 [ㄷ]으로, ‘없느’의 ‘ㄷ’은 [ㄷ]으로 발음되겠군.
- ④ 제11항과 제18항에 따르면, 받침이 ‘ㄴ’으로 동일하더라도, ‘읽다’의 ‘ㄴ’은 [ㄴ]으로, ‘읽느’의 ‘ㄴ’은 [ㅇ]으로 발음되겠군.
- ⑤ 제11항과 제24항에 따르면, ‘ㄷ’이 [ㄷ]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일하더라도, ‘읽다’의 ‘다’는 ‘읽도’의 ‘도’와 달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겠군.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기본권 침해는 위헌이지만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제한이 ㉠ 과도하여 정당화되지 못하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의 원칙은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에도 적용되는데, 이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라 한다. 가령, 개인끼리의 어떤 계약이 유효한지 판단할 때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적용된 것이다.

한편, 사적 법률관계는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사적 자치

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약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사적 자치의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그런데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들의 합의만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계약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과 기본권의 보호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법원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호할지 비교하여 판결을 내린다.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한의 범위가 합리적이라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 안에서 사적 자치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및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이다.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와 그 관리 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해당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정보를 보유한 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어야 하는 비공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정보를 통해 영업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개발 비용을 아끼는 등의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 부과하거나,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약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도 한다. 비밀유지의무는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근로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 계약상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지켜야 할 의무로 간주된다. 이와 달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동종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동종 경쟁 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약정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자유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영업비밀과 같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기업에 근무할 당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고, 퇴직 사유에 기업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도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하되 경업금지의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 상충하는 두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기본권 보호의 법적 근거를, (나)는 동종 경쟁 업체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기본권의 여러 유형을, (나)는 근로 계약의 유형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가)는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나)는 사법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가)는 기본권 제한 및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를, (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가)는 기본권이 사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에 대해, (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법은 헌법과 달리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 ②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규제일지라도 기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 ③ 자유권은 사법에 대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이다.
- ④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효력을 법원이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⑤ 사적 법률관계는 개인 간에 이루어진 자율적인 합의의 결과이므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3.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영업비밀]에 대해 정리한 메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영업비밀의 정의**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 방지 ... ②
-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비공지성이 있는 정보로서 접근에 제한이 있을 것 ③
- 해당 정보를 통해 경제적 유용성을 얻을 수 있을 것 ④
- 계약상 지켜야 할 신뢰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 ⑤

14.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
- ② 경업금지의 조건으로 기업이 영업비밀과 균등한 가치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기 위함
- ③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근로 계약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함
- ④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근로 계약의 유효성과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
- ⑤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을 사적 자치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여 헌법 질서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5.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반도체 개발 업체인 A 기업은 반도체 제조 부서의 팀장으로 갑을 5년간 채용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A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반도체 제조 기술이 영업비밀임을 갑에게 알리고, 퇴직 후 2년간 동종 경쟁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과 경업금지의 대가로 갑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갑이 채용된 지 3년 만에 동종 경쟁 업체의 제안을 받고 전직하자, A 기업은 법원에 갑의 전직 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업금지 기한을 퇴직 후 1년으로 축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① 법원은 갑에게 A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갑이 동종 경쟁 업체로 전직함으로써 A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겠군.
- ② 법원은 사법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적용됨을 고려하여 근로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이 A 기업보다 갑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판단했겠군.
- ③ 법원은 A 기업과 갑의 근로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 중 일부가 갑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경업금지 기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겠군.
- ④ 법원은 A 기업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이익에 해당하며 갑이 A 기업에 근무할 당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겠군.
- 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갑이 계약의 내용과 달리 채용된 지 3년 만에 동종 경쟁 업체로 전직하게 된 이유에 A 기업의 책임이 없는지 살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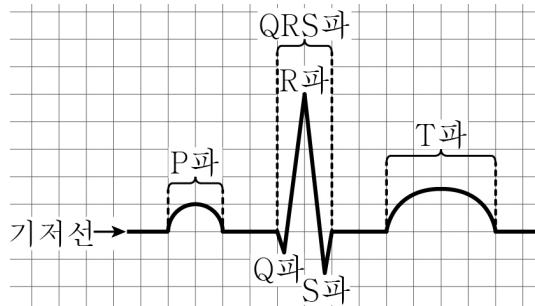
16. ㉠~㉣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본권의 제한이 ‘정도에 지나쳐’라는 의미이다.
- ② ㉡: 계약이 ‘뒤흔들었다면’이라는 의미이다.
- ③ ㉢: 영업활동에 ‘반드시 요구되는’이라는 의미이다.
- ④ ㉣: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 맡게 하거나’라는 의미이다.
- ⑤ ㉤: 여러 요건을 ‘생각하고 헤아려’라는 의미이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온몸에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시킨다. 심장을 수축시키는 전기 자극은 심방의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동방결절에서 생성되어 심방을 거쳐 심장 아랫부분인 심실로 전달되며, 역할을 다한 전기 자극은 소멸한다. 심장 근육을 이루는 심근세포가 전기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 전기 자극이 없는 분극 상태에 있던 심근세포는 전기가 흐르는 탈분극 상태가 되고, 이러한 자극이 인접 세포로 전달되면서 심장은 수축된다. 이후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재분극이 일어나 심장은 이완된다. 정상적인 탈분극은 전체적으로 심장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진행된다.

심전도는 이와 같은 전기 활동으로 생기는 전위차, 즉 전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형으로 표현하여, 심장 내 전기 자극의 생성과 흐름, 소멸을 기록한 것이다. 심전도는 P파, QRS파, T파로 이루어지며, 심전도의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전압을 나타낸다. 정상적인 심장의 경우 <그림>과 같은 파형이 규칙적인 모양과 주기로 나타난다.



<그림>

심전도 검사 시, 신체 표면에 미세하게 전달되는 심장의 전기 활동을 감지하기 위해 몸에 부착한 전극의 조합을 유도라 한다. 심전도에 사용하는 표준 유도는 12가지로, 여러 유도의 파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장의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 중 왼팔, 오른팔, 왼다리 중 두 곳에 부착된 전극 사이의 전압을 기록하는 유도를 **쌍극유도**라 한다. 전극을 부착하고자 하는 두 위치가 신체의 위아래로 나뉠 때는 양극(+) 전극을 아래쪽에, 좌우로 나뉠 때는 양극 전극을 왼쪽에 부착한다. 만약 두 전극의 극성을 바꾸어 부착하면 파형이 심장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전도는 양극 전극을 기준으로 파형을 기록하는데, 탈분극의 진행 방향이 양극 전극을 향하면 기저선보다 위를 향하는 양성 편향 파형, 음극 전극을 향하면 기저선보다 아래를 향하는 음성 편향 파형이 기록된다. 쌍극유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2유도로, 음극 전극은 신체의 오른쪽 위인 오른팔에, 양극 전극은 신체의 왼쪽 아래인 왼다리에 부착한다. 이를 통해 탈분극의 진행 방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정상적인 심장의 경우 제2유도에서 각 파형은 모두 양성 편향으로 기록된다.

심전도에서 둥근 언덕 모양의 ㉠ P파는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며, P파의 가로 폭은 전기가 우심방에서 좌심방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P파 시작점에서 P파 이후 기록되는 QRS파 시작점까지의 간격을 통해 심방의 탈분극이 심실로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전도에서 가장 높고 뾰족하게 기록되는 ㉡ QRS파는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낸다. QRS파는 Q파, R파, S파로 구성된 복합체지만 이 중 일부 파형만 기록되는 경우가 있으며, R파가 양성 편향이면 QRS파도 양성 편향이라고 본다. 심실은 심근세포

가 거의 동시에 활성화되어 심실 전체의 탈분극 시간이 짧기 때문에 QRS파의 가로 폭은 좁은 형태로 기록된다. 또한 심실은 심방보다 근육 양이 많고 그만큼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심근세포가 많아 전압이 높기 때문에 QRS파의 세로 폭은 긴 형태로 기록된다. R파와 다음 R파까지의 간격을 통해 심장이 빠르고 느리게 뛰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QRS파 이후 심전도에 다시 둥근 언덕 모양의 파형이 기록되는데, 이는 심실의 재분극을 나타내는 ㉢ T파이다. 재분극은 탈분극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T파의 가로 폭은 QRS파에 비해 넓게 기록되며, 정상적인 T파의 편향은 QRS파와 일치한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심장은 탈분극과 재분극의 전기 활동을 반복한다.
- ② P파는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전달되는 전기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 ③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파형은 항상 세 개의 파형이 함께 기록된다.
- ④ 심근세포가 전기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 인접한 세포로 전기 자극이 전달된다.
- ⑤ 심전도는 심장 내 전기 활동으로 인한 전위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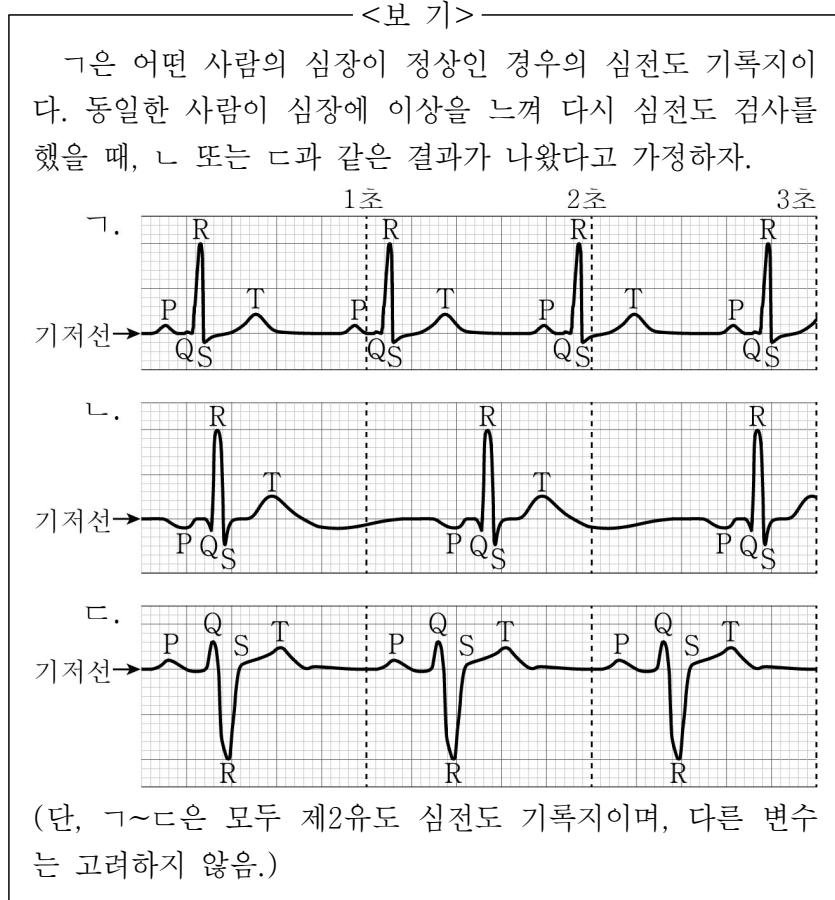
18.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실은 심방에 비해 근육 양이 많아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은 ㉡에 비해 세로 폭이 길다.
- ② ㉠은 심근세포가 전기적으로 자극된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은 심근세포에 전기적 자극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 ③ 심실의 탈분극 시간이 심실의 재분극 시간보다 짧으므로 ㉡이 ㉢보다 가로 폭이 좁다.
- ④ 정상적인 심장의 제2유도 심전도에서 ㉢의 편향은 ㉠과 일치하지만, ㉠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 ⑤ ㉠과 ㉡은 전기 자극의 흐름을, ㉢은 전기 자극이 소멸된 상태를 파형으로 기록한 것이다.

19. **쌍극유도**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가 클수록 세로 폭이 긴 파형이 나타나겠군.
- ② 오른팔에 양극 전극을 부착한다면, 탈분극의 정상적인 진행 방향을 관찰하기 어렵겠군.
- ③ 제2유도에서 감지한 전기 활동의 방향은 정상적인 심장 내 전기 활동의 방향과 일치하겠군.
- ④ 왼팔과 왼다리에 전극을 부착한다면, 왼팔에는 음극 전극을, 왼다리에는 양극 전극을 부착하겠군.
- ⑤ 전극이 부착된 신체 부위는 동일하나 양극 전극과 음극 전극의 위치가 뒤바뀌면 파형이 기록되지 않겠군.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ㄴ에서는 P파가 음성 편향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심방의 탈분극을 일으키는 전기 자극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ㄷ에서는 파형의 모양과 주기가 규칙적이나 QRS파가 음성 편향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심실 내 탈분극의 진행 방향은 정상이나 재분극의 진행 방향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ㄷ에서는 ㄱ에 비해 QRS파의 가로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심실 전체가 탈분극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ㄱ보다 오래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ㄷ에서는 ㄱ에 비해 P파 시작점에서 QRS파 시작점까지의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아,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가 전달되는 시간이 ㄱ보다 오래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ㄴ과 ㄷ은 모두 R파와 다음 R파의 간격이 ㄱ에 비해 넓은 것으로 보아, ㄱ보다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60년대 이후, 이전의 주체 이론이 근대적 사회 구조라는 틀 안에서만 주체의 의미를 다루었다는 비판 의식과 함께 ㉠ ‘주체의 죽음’이라는 용어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체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론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기존의 지배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체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주체를 다룬 대표적인 철학자로 국가 권력의 지배 원리에 주목한 아감벤을 들 수 있다. 아감벤은 전체주의의 절대적인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를 따르는 민주주의의 국가 권력도 배제와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아감벤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사회에서 배제된 조예(zoe)와 배제되지 않은 비오스(bios)로 주체의 위상을 규

정한다. 예를 들어 국가 권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집단만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상황이라면 수감된 자들은 조예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비오스로 규정된 것이다. 이때 조예로 규정된 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데 이를 예외 상태라고 한다. 아감벤에게 새로운 주체란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성립되는 이분법적 구조를 폭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하는 존재이다. 즉, 새로운 주체는 국가 권력의 통제에 저항하여 진정한 예외 상태를 만드는 자이며, 이때 진정한 예외 상태는 국가 권력의 명령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분법적인 예외 상태가 사라진 상태를 뜻한다.

한편, 지젝은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빌려 주체에 대해 설명한다. 지젝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원초적 본능이 존재하며 이러한 본능은 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의해 억압되어 있다. 주체는 원초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이 욕망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 주체는 필연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된다. 지젝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환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결핍을 일시적으로 은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령 돈이 최고라고 보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의 결핍은 환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은폐된다. 특히 지젝은 환상이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특정 체제의 유지 및 정당화에 이용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지젝에게 진정한 주체란 환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이러한 주체는 어떤 것으로도 결핍이 충족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의미가 해석된 환상은 결핍을 은폐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며 주체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아감벤과 지젝은 어떤 존재의 주체성이 자기 외부에 있는 구조로부터 확인받는 것이라면, 그 존재는 주체로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정한 주체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 ‘주체의 복권’을 요청하고 있다.

2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감벤에 의하면, 국가 권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예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비오스로 규정된다.
- ② 아감벤에 의하면, 국민주권 원리를 따르는 국가 권력도 배제의 논리로 주체의 위상을 규정하면서 권력을 유지한다.
- ③ 지젝에 의하면, 주체에 의해 의미가 해석된 환상은 더 이상 주체의 결핍을 은폐할 수 없다.
- ④ 지젝에 의하면, 사회에 보편적 질서가 존재한다면 주체는 원초적 본능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 ⑤ 아감벤과 지젝에 의하면, 주체성을 외부 구조로부터 확인받는 존재는 진정한 주체로 볼 수 없다.

22.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주체라는 개념이 부정될 때 ㉡이 성립한다.
- ② ㉠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강화되어야 ㉡이 이루어진다.
- ③ ㉠을 초래한 지배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이 실현된다.
- ④ ㉠이 일어난 사회 구조가 유지되어야 ㉡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으로 근대적 사회 구조가 형성될 때 ㉡이 일어나게 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영화는 막대한 황금이 매장되어 있는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이 국가의 일부 사람들이 파괴적 본능을 드러내자, 정부에서는 그들만 모아 지하에 가둔 후 황금을 캐는 지하인으로 살게 한다. 또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황금 할당량을 다 채운 지하인만 지상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선포한다. 자유로운 지상인이 되고 싶었던 지하인들은 경쟁적으로 황금을 캔다. 몇 년 후, 할당량을 가장 먼저 달성한 주인공이 지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황금이 전부라고 여기고 황금을 갖기 위해 지하인처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지상인으로 살아가던 주인공은 설령 누군가가 가장 많은 황금을 갖게 된다고 해도 끝내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오랜 시간 고민하던 주인공은 정부의 통치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다.

- ① 아감벤의 관점에 따르면, 정부의 통치 체제에 회의감을 느끼고 정부에 저항하는 주인공은, 이분법적인 예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아감벤의 관점에 따르면, 지하인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지상의 사회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정부의 통제를 받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지젝의 관점에 따르면, 많은 황금을 가져도 끝내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주인공은, 환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지젝의 관점에 따르면, 황금이 전부라고 여기고 황금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지상인은,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결핍이 일시적으로 은폐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지젝의 관점에 따르면, 할당량을 채운 지하인만 지상인이 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는, 통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비평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립 상황은 사실 대립, 가치 대립, 정책 대립, 자아 대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대립은 정보의 진위, 수치화된 자료 등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사실 관계를 둘러싼 충돌이다. 이는 추가 정보나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해소될 수 있다.

가치 대립은 무엇이 옳고 중요한지 등에 대한 신념이나 윤리적 판단 기준에 따른 갈등이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느냐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가치는 논리적 증명이 어려우므로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정책 대립은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는 이견이 생기는 경우이다. 가령,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목표는 같더라도 탄소세 강화, 기술 혁신 등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선택은 다를 수 있다.

자아 대립은 상대로 인해 체면, 평판, 정체성, 전문성과 같은 외적 자기상(自己像)이 위협받는다고 인식될 때 촉발된다. 이때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을 수정하거나 상대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자아의 패배와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상대와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워진다.

(나)

한스 로슬링은 세계를 왜곡하여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을 크게 열 가지 본능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뇌는 스펙트럼적 현실보다는 이분법적 구분을 더 용이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복잡한 현실을 양극단의 대립 구도로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간극 본능이라 한다. 한 예로, 국가를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과 같이 이원적으로 분류하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가는 그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사람들은 현실을 인식할 때 긍정적 현상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부정 본능이라 한다. 이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식하도록 진화한 인지적 특성이지만, 부정적 사례에만 집중하는 경향은 전체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하도록 만들어 객관적 진실과 멀어지게 한다.

제한된 표본이나 사례로부터 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론하려는 경향은 일반화 본능이라 한다. 몇 가지 화학물질이 유해하다고 하여 모든 화학물질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등의 사고가 그 예이다. 이 본능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과 결합될 때 더욱 심화된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적인 악행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은 비난 본능이라고 한다. 사회 문제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를 정치인의 무능함 탓으로만 돌리거나 환경 파괴의 원인을 인간의 무책임으로만 여기는 태도가 비난 본능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다)

이제 인공 지능 기술은 완성도 높은 그림과 음악 등 창의적 결과물을 생산해 낸다. 이에 따라, 인간 노동이 기계 기술로 대체되더라도 창의성만큼은 인간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확신이 흔들리면서 인공 지능을 두려워하는 인식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인공 지능을 ‘창의성이 없는 것’이거나 ‘인간과 같은 창의성을 가진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전자는 인공 지능을 수동적 기계로, 후자는 인간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사람들은 일부 극적 사례를 토대로 미래 사회 전체를 예단하는 특성도 보인다. 인공 지능이 생산한 그림과 음악의 우수성에 대한 뉴스를 접한 뒤 모든 창의적 직업이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한스 로슬링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상의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과 문제의 원인을 특정 주체의 악행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인공 지능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 중 인간에게 불리한 측면에만 주목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인공 지능 활성화를 주도한 사람들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함 탓이라며 그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효율성 증대, 기술 발전의 가속 효과 등 인공 지능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실 복잡적이다.

[B] —————
인공 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간의 역할이 기술에 의해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게 하고, 인공 지능 기술의 가능성을 공포로 느끼게 만든다. 이때 인간은 ‘기계보다 뒤쳐진 인간’이라는 현실 인식에 의해, ‘유능한 인간’이라는 자기상이 위협을 받는다고 여기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기술의 실제 영향보다 인간의 심리적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 균형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4. 다음은 (가), (나)를 읽는 과정에서 학생이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	○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립의 유형 중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대립일까? ① ○ 외적 자기상이 위협받을 때, 상대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아의 패배와 동일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②
(나)	○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과 같이 국가를 분류하는 것은 인간 뇌의 처리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기 때문일까? ③ ○ 인간이 긍정적 현상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갖도록 진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④ ○ 부적절한 판단을 유발하는 인간의 사고 본능 중, 확증 편향에 의해 그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은 어떤 본능일까? ⑤

25. (다)를 바탕으로 할 때, 학생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사실 대립의 특징에 주목하여, 인공 지능과 인간의 창의성을 수치화할 수 있어야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파악하며 읽었다.
- ② (가)에 제시된 정책 대립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며 읽었다.
- ③ (나)에 제시된 부정 본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공 지능의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것이 인공 지능에 따른 사회 변화의 객관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음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④ (나)에 제시된 일반화 본능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간과 같은 수준의 창의성을 가진 일부 인공 지능 기술을 근거로 모든 기술 분야에 반감을 표출하는 경우를 떠올리며 읽었다.
- ⑤ (나)에 제시된 비난 본능의 사례에 주목하여, 인공 지능 기술에 따른 기술 발전의 가속 효과가 어떤 특정 주체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읽었다.

26.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회 현상에 대한 비평문은 특정 현상이 유발된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글로서, 현상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특정 이론이나 관점을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거나 사례 및 통계를 근거로 들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인공 지능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분석 및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② 기술의 실제 영향보다 인간의 심리적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을 문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제시한다.
- ③ 인공 지능 기술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 ④ 특정 학자의 관점을 적용하여, 인공 지능 기술 활성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분석한다.
- ⑤ 인공 지능이 생산한 그림과 음악 관련 뉴스를 접한 뒤 예측의 오류를 범하는 상황을 근거 사례로 들어 견해를 뒷받침한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학술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 또는 [B]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최근의 기술 철학은 기계를 수동적 도구로만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공진화(co-evolution) 과정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창의성은 인간에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기계가 창작 과정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인간은 ‘의미의 설정자’로서 새로운 층위의 창의성을 담당하게 된다. 결국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정체성 약화가 아니라, 정체성 구조의 재편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A] :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인간의 창의성보다 인공 지능의 창의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치 대립 상황이 인공 지능을 수동적 도구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② [A] :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간극 본능에 의해 인공 지능의 창의성을 양극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③ [B] :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인간과 인공 지능의 발전이 공진화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실 대립이 해소되어도 인공 지능의 발전에 의해 유발된 불안감은 지속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B] :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인공 지능이 ‘유능한 인간’이라는 자기상을 위협한다고 보는 자아 대립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의미의 설정자라는 새로운 층위의 창의성을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⑤ [B] :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부정 본능이 인공 지능 기술의 가능성을 위협으로만 인지하게 유도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정체성 구조 재편이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28~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생태 동아리에서 참여했던 도시 양봉 체험에 대한 소감문을 교지에 신고자 함.

[초고]

동아리 활동 중에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후,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와 꿀벌에게 적합한 환경에 관해 알아보고자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러던 중 도시에서도 양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아리원들에게 도시 양봉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자고 제안하여 지난 주말에 함께 다녀왔다.

오전에는 도시 양봉의 특징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강사님께서 도시의 기온이 따뜻하고 조경수가 다양하여 꿀벌을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으며, 보통 도시 양봉은 건물의 유휴 공간인 옥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런데 꿀벌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여, 온습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으면 꿀벌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셨다. 또한 여왕벌을 따라 벌떼가 쏟아져 나오는 분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봉 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스마트 양봉 기술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습도를 비롯한 벌통 내부의 환경과 꿀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도시에서는 스마트 양봉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오후에는 실제로 도시 양봉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했다. 옥상에 올라가니 햇벌이 잘 드는 곳에 벌통이 설치되어 있었다. 벌통 근처에서 꽃가루가 묻은 벌들이 벌통을 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를 통해 꿀벌들이 도시에서도 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사님의 도움으로 벌통을 열어 그 내부를 살펴보았다. 벌집 가운데는 꽃가루들이 묻혀 있고, 바깥 부분에는 꿀이 저장되어 있었다.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는 모습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과 도시에서 양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그리고 신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료를 조사해 봄으로써 인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했다. 앞으로도 나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체험 활동에 도전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28. 다음은 학생이 도시 양봉 체험 후 소감문을 쓰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초고’에 ㉠~㉥이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
- 도시 양봉의 특징 ㉡
- 도시 양봉에 활용되는 스마트 기술 ㉢
- 꿀벌 및 벌통 관찰 내용 ㉣
- 동아리 활동 후의 소감 ㉤

- ① ㉠: 신문 기사를 접한 뒤,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 ② ㉡: 따뜻한 기온과 조경수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도시 양봉의 환경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 ③ ㉢: 꿀벌의 특성에 주목하여,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시하였다.
- ④ ㉣: 꽃가루를 묻힌 채 벌통을 오가는 꿀벌들의 모습과 벌통 내부를 관찰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⑤ ㉤: 체험 전 조사부터 실제 도시 양봉 체험까지의 활동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과 그에 따른 느낀 점을 제시하였다.

29.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시 양봉의 사전적 의미를 정의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② 꿀벌 개체 수의 감소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 ③ 꿀벌의 생태계가 지닌 특징을 인간 사회와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 ④ 꿀벌이 벌통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단계적으로 서술하였다.
- ⑤ 도시 양봉에서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는 추세를 인과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30.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이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받은 의견과 이에 따라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초고 마지막 문단에 대한 동아리 담당 교사의 의견

초고의 마무리가 좀 아쉬워. 개인적인 소감은 (㉠) 관련된 방향으로 수정하고, 다짐 내용은 (㉡) 관련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 수정 후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과 도시에서 양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그리고 양봉이 이루어지는 실제 환경과 꿀벌의 모습, 벌통의 구조 등을 직접 관찰하는 과정에서 꿀벌의 생태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뜻깊었다. 앞으로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도시의 여러 생태계를 탐구하며 다른 생명체들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

- ① 구체적 체험 내용과
- ② 구체적 체험 내용과
- ③ 구체적 체험 내용과
- ④ 양봉 기술의 활용과
- ⑤ 양봉 기술의 활용과

㉡

- 생태 동아리의 활동과
- 전문가의 강의 내용과
- 생태 환경 개선 필요성과
- 생태 동아리의 활동과
- 전문가의 강의 내용과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정현에게는 딸 정연양과 아들 정연경이 있다. 정현은 임자순을 찾았다가 임규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고자 한다. 진담과 그의 아들 진상문은 정연양과의 혼사를 재차 청했으나 정현에게 거절당한다. 임규는 시절이 수상함을 알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진상문은 장원 급제한다.

진상문은 오히려 마음이 정연양에게 땀겨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잠잠히 누워 다만 임규를 한 번 보고자 하며 정가(鄭家)에 이를 갈아 둘의 혼사를 방해하고자 했다.

이러저러 정 씨 집에서 채례*를 받으니 진담 부부는 마지못해 참례하나 진상문은 청병하고 오지 않았다. 임자순이 채례를 극진히 해 보냈다. 정 공이 받아 걸봉을 여니 세 필 비단과 **옥패 한 쌍**이었다. 정현이 그 맑음을 기뻐하는 중 옥패 한 쌍이 천하의 기이한 보배였다. 더욱 기뻐하니 진담이 냉소하며 말했다.

“임 처사가 비록 맑다 하나 어찌 대례를 이같이 박하게 하겠는가. 반드시 가벼이 여김이오. 조카딸의 아름다움으로써 어찌 천금 빙례를 아끼며 형의 위세로써 또 어찌 만금 빙례를 받지 못하겠소.”

정현이 웃으며 말했다.

“혼인의 빙례는 다소를 의논하지 않네. 성인이 예를 지움에 천금으로 예한다 함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그대는 어찌 독특한 말을 하는가.”

진담이 묵묵히 답하지 않았다. 진명이 말했다.

“임가 **빙례**가 비록 간략하나 옥패 한 쌍이 기이한 보배입니다. 천금을 가히 대신할 것이니 임 처사가 아름다운 옥으로 구슬 같은 머느리를 짝함이 기특하고 하늘이 정하신 배필입니다. 마땅히 **옥벼루로 답례**해 쌍옥이 완전하고 인연이 빛남을 표시하지요.”

정현이 사례했다.

“자네의 의논이 명언이네. 마땅히 옥벼루로써 답례해야지. 원래 옥벼루는 신의를 지킴이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부인으로 하여금 옥벼루를 가져오라 해 임가에 보냈다. 진담은 마음이 불평해 먼저 돌아가고 진명은 정현과 더불어 내당에 들어갔다. 부인이 채례를 보고 잠잠히 말이 없으니 진명이 말했다.

“누님은 빙폐의 간략함을 섭섭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옥패가 천하의 기이한 보배입니다.”

정현이 정연양의 유모를 불러 채례를 소저 침실로 보내며 옥패는 노리개에 쓰라 하니 유모가 웃고 들어가 정연양에게 말했다.

“소저, 이것이 임 낭군의 백년신물입니다.”

정연양이 머리를 숙여 정색하고 답하지 않았다.

정연경이 **임규의 기이함을 알고** 정의가 잘 통했다. 누나의 정혼함을 크게 기뻐해 부모를 뵈러 집에 돌아오니 모친이 임규의 인물을 물었다. 정연경이 본디 총명한 까닭에 모친께서 임규의 **얼굴이 곱지 아닌** 줄 들으시면 반드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요 또 부친께 꾸지람을 면하지 못할 줄 알았다. 천연스레 대답했다.

“저의 소견이 어리석으니 자세히 알지 못하되 임 형의 얼굴은 그다지 곱지 못하오니 남자를 어찌 얼굴만 취하겠습니까?”

“상문과 어떠하냐?”

“세상의 어찌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인이 꾸짖었다.

“네 아무리 어리석으나 말대답이 어찌 그다지 모호하냐. **임생의 용모**가 진상문과 비겨 어떠하더냐?”

“진 형은 미려한 선비요 임 형은 **엄숙한 군자**라. 그 얼굴은 진 형만 같지 못합니다.”

부인이 그윽이 임규의 얼굴을 의심해 직접 보고자 해 변민

했다. 진상문은 정현을 한스러워 하여 정 씨 집에 발걸음을 끊었다가 계교를 내어 절개를 더럽히려 용모를 다스리고 정현의 집에 이르렀다. 정현 부부께 배알하고 그 사이 병을 인하여 왕래하지 못함을 청죄하며 소저의 납채함을 하례하고 임규의 아름다움을 일컬었다. 부인과 정현이 그 간교함을 어찌 알겠는가. 혼연히 화답하니 진상문이 그윽이 부인의 기색을 살폈다.

진담이 또한 아들을 위해 널리 매파를 놓아 구혼해 이부시랑 양유의 차녀로 정혼했다. 그러나 양 씨의 아름다움이 어찌 정연양의 하늘이 낸 미모를 당하겠는가. 진상문은 기쁜 마음이 없고 그윽한 일념이 정연양의 혼인 훼방 놓기만 생각했다.

9월 18일은 마침 정현의 생일이었다. 술과 안주를 갖춰 벗들을 모으는데 부인이 이 사이를 타 임규를 보고자 해 남편에게 청했다. 정현이 임자순 부자를 청하니 임자순이 아들을 이끌어 이르렀다. 진상문도 의복을 빛나게 하고 얼굴을 가다듬어 이르렀다.

이윽고 빈객이 모이고 임자순이 또한 아들과 더불어 이르니 정현이 문에 나와 맞았다. 예를 마치고 정현이 임규의 손을 잡고 **애중함**이 비할 데 없는데 진담 등 빈객이 임규의 용모가 아름다워 가히 불만한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다. 얇은 코와 검은 빛이며 넓은 턱이 조금도 아리따운 신량이 아니요 봉안(鳳眼)이 깊고 두 눈썹 사이에 검은 사마귀가 한 줄로 있고 장대한 모양이 극히 추했다.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 사람들이 대경실색해 서로 돌아보며 정현의 사위 택함을 의아해 하고 진상문은 더욱 놀라 분기탱천해 생각했다.

‘정 공이 저런 추한 자를 구해 얻으니 반드시 **눈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정 소저가 옥연시를 사통해 규방을 더럽게 하니 딸의 허물을 감추고자 임가에 정혼함이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이러한 축생을 구하리오.’

그리고 임규를 노려보니 정현이 불쾌해 했다. 임자순 부자가 진상문의 무례함을 심중에 냉소하나 내색하지 않고 피차 이름과 나이를 통하니 임규가 진상문과 동갑이었다. 좌우가 더욱 놀라 임규의 장대함을 다시 돌아보고 거짓인가 했다.

이윽고 잔이 이르러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진명이 임규에게 술을 권하니 임규가 사양했다.

“모든 노선생이 계시고 또 부친이 계시니 어찌 방자히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정현이 친히 잔을 권해 말했다.

“오늘은 노부의 생일이라. 노소가 동락하리니 그대가 사양할 진대 무슨 흥치가 있겠는가. 임 형이 엄하시나 사위가 어찌 처가에 와 한 잔 술을 피하겠는가.”

- 작자 미상, 「임화정연」 -

* 채례: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보내는 예물.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3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연경은 모친이 임규의 외모에 실망할 것을 염려하였다.
- ② 진상문은 그간 정현의 집에 왕래하지 못한 이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
- ③ 진상문은 정연양에 대한 미련으로 양 씨와의 정혼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 ④ 임자순은 진상문의 무례함에 속으로 냉소하였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 ⑤ 임규는 진명이 권한 술잔을 받기 위해 주변 어른과 부친에게 허락을 구하였다.

33. 옥패 한 쌍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신분을 증명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 ② 신의를 어긴 인물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이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교감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상반된 반응을 유발하여 사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에 맺은 인연을 상기시켜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화정연」은 혼사 장애를 중심 화소로 삼는 작품으로, 19세기 향유층의 변화된 의식을 보여 준다. 기존 소설이 뛰어난 외모가 곧 덕성이라는 전형을 따르는 데 비해 이 작품은 덕성과 능력을 지녔지만 못난 외모의 주인공,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인물형을 내세운다. 또한, 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보여 줌으로써 그 인물의 본심이나 됃됨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외양에 가려진 내면적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을 갖춘 인물을 통해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악인 가문보다 주인공 가문을 열위에 두는 설정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 ① 임 처사가 보낸 ‘빙례’에 대해 ‘옥벼루로 답례해’야 함을 제안한 진명의 모습에서, 악인 가문이 주인공 가문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임규의 기이함을 알’아보고 그의 ‘엄숙한 군자’다운 면모에 주목하는 정연경의 모습에서, 식견을 갖춘 인물을 통해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정현 부부에게 임규를 칭찬한 진상문이 속으로는 정현의 ‘눈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임규가 ‘얼굴이 곱지 아’니하나 범상한 무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영웅’이라는 서술에서, 외모는 뛰어나지 않지만 영웅적 자질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주인공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임규를 ‘애중’하게 여기는 정현과 달리, ‘임생의 용모’를 ‘의심’하며 ‘직접 보고자 해 번민’하는 부인의 모습에서, 혼사 과정에서 인물의 외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맺힌 시름 풀자 하니
내 신세 곤하기가 그리 야단스러운가
토산(土産)의 박박주(薄薄酒)도 그나마 팔지 않고
기생들은 음악을 연주 해도
어느 경(景)에 즐기면서 거문고에 노래할까
장평산(長平山) 허천강(虛川江)에 유람에도 뜻이 없네
백성 풍속 후하여도 겉옷 한 벌 아니 준다
나무껍질 지붕 엮고 흙 이긴 방에
두문(杜門)하고 홀로 있어
㉠ 승예(蠅蛭)*는 창을 덮고
조갈(蚤蝎)*은 벽 위에 가득한데
앓은 곳의 해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밖에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 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려 상시(常時) 할까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보거나 서신이나 틈틈이 보내어도
기다린들 통(通)이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볼 때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천산만수(千山萬水) 막힌 길에
온갖 괴롭고 힘든 생각 뉘 헤아릴까
문노라 밝은 달아 양지(兩地)* 모두 비추는가
따라갈까 뜬구름아 남천(南天)으로 단는구나
㉢ 흐르는 냇물 되어 집 앞에 둘러 흐르고자
나는 듯 새 되어 창전(窓前)에 가 노닐고자
내 마음 헤아려보니 노친의 생각이야 일러야 무엇하리
여의(如意) 잃은 용이요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秋風)의 **낙엽(落葉)같이** 어디로 가 정박할까
집안도 파산(破散)하고 친속(親屬)은 흩어지니
길에서 방황한들 **갈 곳이 전혀 없네**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수시나
㉣ 일점의리(一點衣履)* 살폈는데 어느 자손 대신할까
나 아니면 뉘 모시며 자모(慈母)밖에 날 뉘 사랑할까
- 이광명, 「북찬가」 -

- *승예: 파리와 모기. *조갈: 벼룩과 지네.
*학발자안: 흰 머리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
*양지: 귀양 간 곳과 노모가 있는 곳.
*일점의리: 한 벌 옷과 한 켤레 신.

(나)

아아, ㉠ 만물은 모두 바뀌거니, 사람도 나고 죽거니, 젊어지고 늙어가는 것은 모두 천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정말 어찌해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성정이라든가 습관이 일탈되는 것, 그리고 학문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일 뿐이지, 천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루도 그러한 방향으로 힘을 쓰려고 하지 않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진다고 해도 이를 감수한다. 이는 겉모습만 사람일 따름이지, 그 속마음은 이미 ㉢ 균수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니, 이 어찌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내 친구인 평산(平山) **신공보(申功甫)**는, 순수하고 소박한 자질을 갖춘 이로, 일찍이 우계 선생(牛溪先生)의 문하에서 공

부하였다. 비록 세상의 번고를 두루 거쳤지만, 평소에 지닌 뜻을 더욱 굳게 지켜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임금에게 아뢴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서쪽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벌써 예순이었다. 괴로운 상념이 마음속에 교차하였지만, 거백옥(鑣伯玉)이 예순 살에 자기를 바꾸었다는 말에 느낀 바가 있었으니, 마침내 화당(化堂)으로 자신의 호를 삼았다.

무릇 거백옥으로 말하면, 옛날의 훌륭한 대부(大夫)로서 나이 오십에도 마흔아홉 살 때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던 분이였다. 그리고 예순이 될 때까지 계속 자신을 바꾸어 갔으니, 그가 실제로 얼마나 개과천선하여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었을지를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기에 우리 공자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나아가 ㉠ 장자처럼 세속의 일을 우습게 보는 사람마저도 백옥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극구 칭찬을 하였다. 공보가 이분을 목표로 삼고 스스로 노력하려 하였으니 그 뜻이 탁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보가 조정에 돌아오고 나서 일찍이 나를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얼굴 모습은 물론 수염이나 머리칼 하나 손상된 것이 조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몸 안에 기품이 가득찬 듯하여 마치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역시 이 바뀐이라는 경지를 실제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 공보는 예순이 되어서도 변화하려는 데에 뜻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나이 원(元)을 먹도록 잘못된 것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공보에게 너무도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화당설(化堂說)을 지어 공보에게 주면서, 동시에 나의 부끄러운 심정을 스스로 토로하는 바이다.

- 장유, 「화당설」 -

35.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내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고사를 인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중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상과의 문답을 제시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6.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꿈속에서의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대상 곁에 머물고 싶은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대상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과 인간을 비교하여, 성정이 바뀌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타인의 평가를 제시하여, 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3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 주는 대상이고, ㉢은 천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② ㉠은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을 암시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③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대상이고, ㉢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과 동일시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④ ㉠은 화자의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대상이고, ㉢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⑤ ㉠은 화자의 부정적 현실을 환기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유배라는 고립된 상황에 처한 인물의 내면적 고뇌와 대응을 다루고 있다. (가)의 화자는 그리운 대상을 만날 수 없는 현실에 깊은 상심을 느끼고 대상과 함께할 수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불안정한 처지로 비탄에 잠기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나)의 글쓴이는 유배지에서의 번민을 자기 변화의 계기로 삼은 인물에 주목한다. 글쓴이는 늦은 나이에든 부단한 수양으로 내면의 성숙을 이뤄낸 인물과 자신을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① (가)의 화자가 ‘천산만수 막힌 길’에서 ‘노친 소식’을 모르는 것과 (나)의 ‘신공보’가 ‘서쪽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된 것은 모두 유배지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가 ‘밤을 새’우며 ‘한숨 끝에 눈물’ 짓는 것과 (나)의 ‘신공보’가 ‘괴로운 상념이 마음속에 교차하’는 것은 모두 인물의 내면적 고뇌를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화자가 ‘유람에도 뜻이 없’이 ‘두문하고 홀로’ 지내는 것은 현실의 괴로움에 상심하고 있는 모습을, (나)의 ‘신공보’가 ‘거백옥’을 본받아 ‘화당’이라 호를 지은 것은 번민 속에서도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군.
-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을 ‘키 없는 배’에 비유하여 삶의 기반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나)의 글쓴이는 ‘예순’의 나이에든 변화를 추구했던 ‘공보’와 ‘원’의 나이에든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대비하며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낙엽같이’ ‘갈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화자가 대상과 함께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모습을, (나)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기품이 가득’ 차게 된 것은 글쓴이가 타인의 성취를 본보기로 삼아 ‘바뀐이라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돈에 관한 한, 천민 줄부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검박한 삶의 본을 보이는, 희귀한 미덕의 소유자. 하지만 정신의 경우, 어쩐지 단 하나의 잣대로만 세계의 모
[A] 습을 해석하는 듯한 모노코드 난수표의 소유자. 인식의 지평 넓히기를 한사코 거절하는 사람, 자기의 인식 너머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용인하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당시의 내 메모에는, 하 사장에 대한 이런 인물평이 적혀 있다.

탈고가 되어 갈 즈음 나는 서울의 내 아파트에서 4년째 살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들딸이 자라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 되어 더 이상 한 방에다 재울 수 없는 형편인 만큼 서고를 다른 데로 옮겨 방을 비워 주지 않으면 부득이 방이 세 개인 집으로 이사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게는 미국에서의 스케줄 때문에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해 입주시킬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나름대로 계산을 놓아 보았다. 일 년에 한두 차례씩 서울로 들어와 호텔에서 두어 달씩 묵는 비용의 곱
[B] 절이면 하 사장 호텔의 방 하나를 일 년쯤 장기 임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다. 서울에 있는 책을 모조리 실어 내려와 호텔에다 서재라도 하나 꾸며 놓으면 특정한 책이 책더미에 들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꺼낼 수가 없어서 다시 사는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을 터였다.

내가 하 사장을 천박한 수전노, **구제 불능의 외눈박이**로 보았던 것은 사실이다. ㉠ 그와의 대화에서 무수한 상처를 경험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약점을 덮어 줄 만한 강점 또한 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하 사장은 일모 선생의 애제자가 아니었어도, **검소하고 질박하게 사는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은 내 쪽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어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하 사장에게 나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어놓았다.

“자네가 서재를 꾸며 놓으면 일 년 중 10개월은 빈 방으로 있을 텐데, 이걸 국가적인 낭비야, 낭비.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 내가 제일 큰 한식 방을 내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서재를 만들게.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가 와 있지 않을 동안, 성수기에 손님이 넘치면 그 방에도 손님을 들이기로 하겠네. 내국인은 절대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네. 내국인은, 이물 없게 여겨서 그런지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유럽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들이기로 약속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이것은 자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네만, 우리 호텔 방 사용료는 자네가 제안한 액수의 3분의 2만 받겠네.”

일 년 전의 초여름 나는 서울에 있는 책을 경주로 실어내려 하 사장이 내어 준 널찍한 방에다 서재를 꾸몄다. 2, 30년 동안 낮익었던 내 책의 알락달락한 책등을 5년 만에 재회하는 기분은 썩 팬찮은 것이었다. ㉡ 나는 여러 권 가지런히 꽂힌 책의 책등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는 한다. 모르기는 하지만 책에 대한 나의 이러한 심적 태도에는 책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말하자면 애정의 거품 같은 것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미국에서 출판을 마친 ‘나’는 책이 낡은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 사장을 소개해 준 일모 선생에게 위로를 구하러 찾아간다.

“그래, 하 사장에게 그런 흠결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그러는 자네는 하 사장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

㉢ “자네 책을 화장실에 처넣은 것이 그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까?”

“.....”

“자네는 하 사장 찾아갈 때 고급 위스키도 사고, 요릿감 쇠고기도 사 가지고 갔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술도 많이 사다 마셨는가? 이따금씩은 양주도 사다 마셨는가?”

“원래 제가 일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틈틈이 술을 좀 많이 먹습니다.”

“맥주를 상자째 사다 놓고 외국 손님들과도 나누어 마시고 하 사장과도 나누어 마셨는가?”

“.....”

㉣ “사람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다면서 하 사장을 데리고 나가 한 상 떡 벌어지게 잘 대접한 일도 있는가?”

“네. 하도 깨작거리서 제가 본을 좀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책을 화장실에 처넣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다.”

㉤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 사장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 쓰는 법을 배울 나이는 지났습니다.”

“배울 나이가 지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울 나이가 지났는데도 배우기를 거절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자네는 너무 고상한 일을 하느라고 **발 밑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인가. 자네는 하 사장 호텔에서 자네 주머니의 돈을 쓴 것이 아니다.”

“.....”

“우리가 자네의 한국 체재를 지원하지 않았는가?”

“.....”

“홍청망청 쓰지는 않았겠지만 만일에 자네에게 그 정도 지출할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지원은 안 받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

“사람이란, 이렇게 보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려고 작정하면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는 하 사장에게 대한 고려가 송두리째 빠져 있다. 자네는 하 사장을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네는 말이야, 어떨 때 보면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도 어떨 때 보면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없어.”

“.....”

“우리가 직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직선이겠는가? 혹시 곡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자네 말마따나 **대롱* 시각**으로 보고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가? 자네는 혹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닐 것인가.”

— 이윤기, 「숨은 그림 찾기 1- 직선과 곡선」-

* 대롱: 통대의 토막처럼 생긴 가느스름한 관(管)을 통틀어 이르는 말.

39.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B]는 동시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
- ②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회상하고 있고, [B]는 서술자가 과거에 특정 인물과 나눴던 대화를 요약하고 있다.
- ③ [A]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관찰 대상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나열하고 있고, [B]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서술자의 사고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B]는 공간의 묘사를 통해 서술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가 하 사장에게 불편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음을 드러낸다.
- ② ㉡: 책이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대상임을 드러낸다.
- ③ ㉢: 하 사장이 ‘나’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 ④ ㉣: 일모 선생이 ‘나’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 ⑤ ㉤: 하 사장의 행동에 내포된 진의를 알게 된 데에 따른 당혹감이 드러난다.

41. **합리적인 절충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하 사장의 강점이라 여겼던 면모가 드러나는 제안이다.
- ② ‘나’의 책을 이용하여 외국인 손님을 늘리기 위한 하 사장의 제안이다.
- ③ ‘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하 사장의 생각이다.
- ④ 하 사장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⑤ 하 사장이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이다.

42.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인식의 자기중심성’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의 말과 행동을 이해해 보자.

인간은 타인을 인식할 때 자신이 이해한 방식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형성되고, 그러한 인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타인의 행위를 비판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 식대로 타인을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정작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인식의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내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가 하 사장을 ‘인식의 지평 넓히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여기며 ‘구제 불능의 외눈박이’로 규정하는 것은, ‘나’가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하여 타인을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② 하 사장이 ‘유럽인과 유태인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하 사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가 하 사장에게 ‘고급 위스키’와 ‘쇠고기’를 사 간 것은, ‘검소하고 질박하게 사는 이치를 터득한’ 하 사장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겠군.
- ④ 일모 선생이 ‘발 밑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나’를 지적하는 것은, ‘나’가 자신이 하 사장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고려하지 못하면서 하 사장에 대한 자신의 인식만 드러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⑤ 일모 선생이 ‘대롱 시각’으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이 아니냐고 ‘나’에게 묻는 것은, ‘나’가 자기 식대로 하 사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자기중심성에 갇혀 있었음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방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를 분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리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내면과 교류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에, 방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 이때 방을 매개로 드러나는 화자의 내면은 ㉠ 특정 대상, 행위, 이미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형상화되며, 독자는 이를 통해 화자의 내면 상태를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힘겨운 현실을 수용하거나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를 갖기도 한다. 또한 방은 창을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켜줍니다. 불을 켜 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롭을 일입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옵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들여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 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비 속에 젖어 있습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 눈을 감으면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갑니다.
- 윤동주, 「돌아와 보는 밤」 -

(다)

슬픔이 나를 깨운다.

별써!

매일 새벽 나를 깨우러 오는 슬픔은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 슬픔은 분명 과로하고 있다.

소리없이 나를 흔들고, 깨어나는 나를 지켜보는 슬픔은
공손히 읊하고 온종일 나를 떠나지 않는다.

슬픔은 잠시 나를 그대로 누워 있게 하고

어제와 그제, 그제, 그 전날의 일들을 노래해준다.

슬픔의 나직하고 쉼 목소리에 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슬픔은 가볍게 한숨지며 노래를 그친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모르겠어..... 나는 중얼거린다.

슬픔은 나를 일으키고

창문을 열고 담요를 정리한다.

슬픔은 책을 펼쳐주고, 전화를 받아주고, 세숫물을 데워준다.

그리고 조심스레

식사를 하지 않겠냐고 권한다.

나는 슬픔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지 않다.

내가 외출을 할 때도 따라나서는 슬픔이

어느 결엔가 눈에 띄지 않기도 하지만

내 방을 향하여 한발 한발 돌아갈 때

나는 그곳에서 슬픔이

방안 가득히 웅크리고 곱다랗게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 황인숙, 「슬픔이 나를 깨운다」 -

43. ㉠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다)는 화자의 감정을 의인화하여 감정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다)는 상상 속 대상의 구체적 행위를 나열하여 대상으로부터 유발된 화자의 경외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감각의 전이를 통해 시적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모순적인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화자의 좌절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무력감을 극복해 낸 화자의 상태를, ㉢는 슬픔으로 인해 화자의 무력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② ㉡는 방을 어렵게 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는 슬픔이라는 감정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 ③ ㉡는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가게 된 기점을, ㉢는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낸다.
- ④ ㉡는 경험적 사실로만 세상을 인식하겠다는 화자의 선택을, ㉢는 화자의 선택으로 점점 커지는 슬픔의 정도를 나타낸다.
- ⑤ ㉡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는 화자가 슬픔과 분리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나타낸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화자가 ‘방에 돌아와 불을 켜’며 세상의 낮과 단절되려는 것과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 것에서, ‘방’은 외부 세계로부터 개인이 분리되는 공간이면서 제한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방 안에서의 사유의 과정을 ‘능금’처럼 ‘익어’ 간다고 표현한 것에서, ‘방’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화자가 방으로 돌아가면 슬픔이 ‘곱다랗게 기다’린다고 여기는 것에서, ‘방’은 화자가 슬픔과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화자가 방 안에서 ‘비 속에 젖’은 세상을 보는 것과 (다)에서 화자가 방 밖에 있을 때는 슬픔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것에서, ‘방’은 외부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과, (다)에서 화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슬픔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방’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내면과 교류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